

금강산관광사업 추진현황('04.5월현재)

1. 사업추진 의미

- '98.11.18 첫 출항으로 시작된 금강산 관광사업은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으로서 그동안 남북을 잇는 평화사업의 성격을 갖고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에 기여
 - 시작 당시 북한의 금창리 핵의혹 시설,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,
 - 우리 경제가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 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
- 북한의 최전방 해군기지였던 장전항 개방에 이어, 육로관광을 위해 휴전선을 통과하는 국도 7호선 연결이 추진됨으로써, 한반도에 평화정착과 군사적 긴장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
 - 특히 금강산육로관광은 남북관광교류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,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협력증진에 기여
- 또한, 금강산관광사업은 개성공단 조성, 철도·도로연결 사업 과도 밀접하게 연관
 - 금강산관광이 차질을 빚을 경우 다른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 초래
- 비무장지대를 넘나드는 3대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도 기여

- 매일 군사당국간 직통전화 운용, 군사실무회담·접촉 20회 개최
 - * 북측도 “철도·도로연결, 금강산육로관광, 개성공단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현실적 조건에 맞게 인원과 차량의 MDL 통과를 더 원활하게 보장해야 한다”는 입장 표명(9.17 군사실무회담 기조발언)
- 아울러, 3대 경협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남북대화의 모멘텀 유지 및 북한의 개방·변화 유도에도 긍정적
-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의 촉진자 (facilitator)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는데도 기여

2. 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

□ 관광객 현황(5.26 현재)

- 관광객은 총 648,805명, 금년 들어 지속 증가 추세
 - 금년 3월부터는 월관광객 1만5천명 상회
 - * '04.3월 15,583명, '04.4월 16,176명, '05.5.1-26 14,325명 관광

< 연도별 관광객 현황 >

(단위:명)

1998	1999	2000	2001	2002	2003	2004	합 계
10,554	148,074	213,009	57,879	84,727	74,334	60,228	648,805

- 육로관광의 지속 실시로 관광객 지속 증가
 - '03.9 육로관광 재개이후, '04.4월까지 월평균 관광객은 12,044명
 - '04.1월부터 육로관광 매일 출발
 - * '04.1.11이후 해로관광 중단, 현재 선박교체를 위한 협의 진행 중

□ 추진계획

- 1박2일 및 당일관광 등 관광상품 다양화 추진
 - '04.3.31~4.4, 1박2일 시범관광 2회(432명) 실시
 - '04.6월 실시를 목표로 당일관광, 1박2일 관광 추진 중
- 해로관광은 사업자간 협의를 지켜보면서, 관광객 안전대책 등을 수립하고 조속히 재개되도록 유도
- 관광객 증가의 최대 장애요인인 숙박시설 부족문제는 금년 6월 금강산여관 개장(435명 숙박)으로 일단 완화될 전망
 - 금강산여관 개장, 하절기 야영장 운영시 1일 숙박규모는 최대 2천명까지 확장

3. 금강산 관광특구 개발

- '04.5.26, 북측은 '관리기관 설립·운영', '세관', '출입·체류·거주' 등 「금강산관광지구법」 하위규정 3개 발표('04.4.29 제정)
 - 이로써, 사업자간 협의해 오던 10개 규정 중 5개 규정 발표
 - * 현대-아래는 개발, 기업창설, 관리기관 설립, 세관, 출입, 외화, 광고, 노동, 부동산, 회계 규정 협의, '03.6 [개발],[기업창설] 규정 공포
- '04.5.25~6.1, 현대·아태 법규담당자 중국 경제특구(상해, 소주공단, 심천특구 등) 시찰
 - 외환거래, 토지임대, 회계검증 등에 대한 북측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

- 특구개발계획은 WTO 초안을 바탕으로 우리 업체가 세부계획 (시설물 배치, 소요자금, 투자계획 등 포함) 수립 중
 -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필요한 검토를 거쳐, 사업자가 북측에 제출하게 되며, 이를 바탕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됨.
 - * 금강산관광지구법은 개발사업자가 개발계획 제출후 1달 이내에 북한 당국이 이를 승인하고 이에 따라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규정
- 현대측은 개발계획 확정 즉시 투자설명회 개최, 주식 공모, 사업별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해 개발자금을 조달할 계획

//끝//

< 붙임1 >

금강산관광사업 추진경과

일 자	내 용	비 고
'98.6.23	금강산관광 및 개발사업 협의	정주영 방북
'98.9.7	현대3사(현대상선·현대건설·금강개발)협력 사업 승인	현대북한 합영투자 방식(95,826천불)
'98.10.29	[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계약서]체결	
'98.11.18	금강산 관광선(금강호) 첫 출항	
'99.6.21	민영미 억류사건 발생	관광중단
'99.8.5	[관광세칙] 및 신변안전 관련 합의서 체결	관광재개
'99.10.23	외국인 금강산 관광 시작(풍악호 16명 탑승)	
'00.5.24	장전항 본선 부두 준공	
'00.6.8	관광대가 조정, 육로관광·관광특구 지정 합의	
'01.6.23	[한국관광공사] 금강산관광사업 참여	
'01.10.3~5	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1차 당국 회담 개최(금강산)	
'02.4.4	학생·교사, 이산가족, 유공자, 장애인 관광경비 지원 실시	
'02.9.10~12	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2차 당국 회담 개최(금강산)	
'02.11.25	[금강산관광지구법] 발표 - [지구관리기관] 구성, 특구 개발·운영 등	
'03.2.14~16	동해선 임시도로 개통식 및 시범육로관광	
'03.4.26 ~6.26	사스(SARS)로 금강산관광 중단	
'03.6.29	북. [개발규정],[기업창설운영규정] 등 [금강산 관광지구법] 하위규정 2개 발표	
'03.9.1	육로관광 재개	
'03.10.8	금강산관광지구 경계 확정	
'04.1.11	설봉호 임대 해지, 해로관광 일시 중단	
'04.2.23	WTO, 금강산종합개발계획 초안 작성 완료	
'04.3.31~4.4	금강산 1박2일 시범관광 2회 실시	
'04.4.1	금강산종합개발계획 전문가 설명회 개최	
'04.5.26	북 '관리기관 설립·운영', '세관', '출입·체류·거주'등 [금강산관광지구법] 하위규정 3개 발표	